



내 넋을 그리자와 우니나니

화자. 임금

산 접동새 난 비슷하요이다. 동병상련, 감정이입

한의 등가물.

아니시며 거츨르신 들 아으

殘月曉星이 아라시리이다.

천지신명, 화자의 무죄를 알고 있는 존재. ⇒ 자신의 처지와 무죄 호소

넋시라도 넋은 한대 넋져라 아으

일편단심

벼기시더니 누러시니잇가.

화자에게 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화자를 귀양오게 한 사람.

과도 허물도 천만 없소이다.

결백 호소

말히마리신더

살웃븐더 아흐

⇒ 결백에 대한 호소

니미 나랄 하마 니자시니잇가

벌써 잊으셨습니까?

아소 넋하, 도랄 드르샤 괴오쇼셔.

10구체 향가의 영향. 다시 ⇒ 다시 불러주기를 기원함

< 해 석 >

내 그대를 그리워 울며 지내니

산 접동새와 난 비슷합니다.

사실이 아니며 거짓인 것을

잔월효성은 알 것입니다.

넋이라도 그대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우기시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나침도 잘못도 전혀 없습니다.

음해하는 말입니다(모함하는 말입니다, 못 사람들의 말입니다)

슬픕니다(살고 싶지 않습니다)

임이여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아십시오. 임이시여 다시 내 말을 들어서서 사랑해 주십시오.



갈 래 : 고려가요

어 조 : 여성적 어조

성 격 : 충신연주지사, 유배 시가

주 제 : 자신의 결백 호소와 임금에 대한 충정

특 징 : ① 분연체가 아닌 단연시.

② 객관적 상관을 통한 자신의 심정 호소.

③ 한글로 전하는 고려 가요 중 작가가 알려진 가요.

④ 10구체 향가의 모습이 남아 있는 작품(향가계 여요)

⑤ 유배시가의 호시.

⑥ 충신연주지사의 대표적 작품.

해 설

이 작품에서 시적 화자는 처음에 입을 그리워하며 지내는 자신의 비통한 처지를 한(恨)의 이미지를 표상하는 ‘접동새’에 비유하고 있으며, 자신의 결백을 자연물인 ‘잔월효성’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주장의 객관성을 얻고자 한다. 이어 화자는 자신의 결백을 알아주는 이 없으나 죽어서 혼이라도 임과 함께 하고 싶음을, 그리고 자신은 정말 잘못이 없으니 잊지 말고 다시 사랑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유배된 신하가 자신의 결백을 하소연하고 나아가서 예전처럼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염원하는 충정을, 남자로부터 버림 받은 여성의 입장을 빌어 노래한 연주지사(戀主之詞)로 볼 수 있다.

군신(君臣)이라는 공적이고 수직적인 상하관계와 그로부터 생겨난 갈등을, 사적이고 수평적인 남녀 관계로 전환시킨 다음에, 여성 화자를 빌어 연모(戀慕)와 원망(怨望)의 정서를 자연스럽게 표출한 기법은 조선 시대의 시가에도 계속된 점에서 그 시가사적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는 다른 작품

(가)

개야미 불개야미 잔등 부러진 불개야미,

압발에 정종나고 뒷발에 종귀 난 불개야미, 廣陵(광릉) 심재 너머 드러 가람의 허리를 가로 물어 추혀 들고 北海(북해)를 건너듯 말이 이셔이다.

넘아 남아.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 님이 짐작하소서.

(나)

대천 바다 한가운데 중침 세침 빠지거다

여남은 사공놈이 끝 무딘 상앗대를 끝끝이 둘러메어 일시에 소리치고 귀 께어 냐단 말이 있소이다.

넘아 남아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 님이 짐작하소서.

(다)

내 일 망령된 줄 내라 하여 모랄 손가.

이 마음 어리기도 님 위한 탓이로세

아뵈 아무리 일러도 임이 헤여 보소서.